

인지문법의 두드러짐의 원리로 본 영어주어에 대한 이해

금 철 룡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외국어문법을 잘 모르면 외국어문장을 정확히 이해할수 없으며 번역도 잘할수 없습니다.》

인지문법론의 두드러짐의 원리는 인지언어학연구의 기본원리의 하나로서 문장에서 정보가 어떻게 선택되고 배열되는가 하는 문제가 기초하고있는 원리라고 할수 있다. 이 원리는 사람들이 실지로 나타내는 표현은 사건의 어느 한 부분이 두드러져 그들의 주의를 끌어당기는가 하는것을 반영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있다.

실례로 비행기가 추락한 사고에 대한 묘사로 볼수 있는 문장 《The plane crashed into a hill.》을 보기로 하자. 이 문장을 보면 비행기사고환경을 아주 자연스럽게 묘사했다는것을 알수 있을것이다. 그것은 날아가던 비행기가 전체 환경에서 가장 흥미있고 두드러지는 측면으로 되어 명사구(the plane)로 문장을 시작하려는 경향이 있기때문이다.

대비적으로 《A hill was hit by the plane.》이라는 문장은 비행기사고를 묘사하는 방식으로서의 적합한 문장으로 안겨오지 않으며 오히려 이상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못한 문장으로 느껴진다. 이것은 문장의 주어선택이 환경에 포함되는 요소들이 나타내는 각이한 정도의 두드러짐에 의하여 결정된다는것을 말해준다.

전통문법에서 주어는 문장의 앞자리에 놓이며 문장에서 서술되는 행동의 수행자로서 문장의 주요성분으로 설명되고있지만 이것은 주어에 대한 전면적인 해명이라고 말할수 없다. 왜냐하면 문법적특성을 기본으로 보는 전통문법으로는 주어가 가지고있는 모든 속성을 다 설명할수 없기때문이다.

인지문법의 두드러짐의 원리에서 볼 때 영어주어에서 특징적인것은 주어에 주제성(주제적성질)이 있다는것이다.

주제성은 문장에서 설명되는 사건의 본질을 나타내는 특성으로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주어와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원형적인 주어는 최대의 주제성과 높은 정도의 두드러짐을 가진다.

원형적으로 보면 주어는 행동의 수행자이므로 행동과정의 출발점으로 된다.

행동수행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참가자가 포함되는 문장에서 그 참가자를 주어로 선택하면 그것을 지정선택이라고 한다. 피동형에서처럼 그 어떤 다른 참가자를 주어로 선택하자면 특수한 동기가 요구된다.

인지적인 두드러짐의 원리로 볼 때 말하는 사람의 뒤에 오는 대상은 듣는 사람이다. 그것은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은 언어행위에 공동으로 참가하는 자연스러운 대상들이기때문이다. 이러한 로정을 계속 따라가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아닌 대상을 만나게 되며 다음에는 동물, 그다음에는 물리적인 대상과 추상적인 대상 등이 놓인다. 즉 영어에서는 speaker > hearer > human > animal > physical object > abstract entity 의 등급으로 놓인다.

다음의 실례들을 놓고 주어와 보어사이의 두드러짐의 정도를 분석해보자.

례: (1) (a) The man chased me.(그 사람이 나를 뒤쫓아왔다.)

(a') I was chased by the man.

(b) I chased the man.(나는 그 사람의 뒤를 따랐다.)

(b') The man was chased by me.

능동문장들인 (a)와 (b)는 아주 자연스럽다. 그것은 매 경우에 행동수행자인 참가자가 주어로 선택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장들에 대응하는 피동문장들은 적절한것이 못된다. 그것은 (a')와 (b')의 주어는 행동수행자의 자격이 부족하며 이 문장들에 있는 주어는 다른 참가자인 the man과 me보다 낮은 등급에 놓이기 때문이다. 보어가 주어보다 높은 등급에 놓이는것이 허용되지 않거나 혹은 보어가 주어보다 높은 등급에 놓이는 경우에 동사에 특별하게 표식을 하는 언어들도 있다.

주어와 주제는 일정한 방식으로 연관되어있으나 그 관계의 특성에 대해서는 일치한 견해가 없다. 주제에 대한 제한적이면서도 명백한 특징을 설명하여야만 주어-주제관계를 옳게 평가할수 있다.

주어는 절수준구조의 요소인 반면에 주제는 담화구조의 요소이다. 담화흐름의 일정한 점에서 어떤 대상은 특수한 표식이나 문법적구조체에 의하여 주제로 설정된다.

영어에서 주제는 여러가지 수법에 의하여 설정된다.

례: (2) (a) As for weddings, they always bore me.

(결혼식들에 대해 말한다면 난 항상 그것들이 진저리가 나.)

(b) Weddings, they really leave me cold.

(결혼식, 그것들은 나에게 있어서 정말 귀찮아.)

(c) Weddings I just don't care for.(결혼식들을 난 관심안해.)

(3) I've been thinking about the wedding. I only want to invite the immediate relatives. The back yard would be a good place. We don't need flowers ...

(난 결혼식에 대해 좀 생각해보았어. 가까운 친척들만 초청했으면 해. 집뒤마당이 좋을것 같애. 꽃들은 필요없을거구...)

주제는 일단 설정되면 일정한 범위의 담화를 지배하므로 설정된 주제는 실례(2)의 문장(a)와 (b)에서처럼 대명사(they)에 의하여 지시되며 지어는 (c)에서와 같이 지시어가 빠지기도 한다. 결국 결혼식은 실례(3)의 첫 문장이후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지만 그뒤의 문장들은 결혼식의 주제지위를 전제로 한다.

언어행위참가자들의 인식에서(혹은 현재의 담화공간에서) 주제는 절이 해석되게 하며 절의 내용이 결합되는 구체적인 개념적령역을 나타낸다. 실례(3)에서 뒤마당은 결혼식에 특별히 좋은 장소로 리해된다. 실례(3)을 말하는 사람은 꽃을 다른 용도로도 필요할수 있지만 결혼식이라는 주제가 이미 설정되었으므로 마지막문장에서 언급한 꽃들이 결혼식을 하기에 충분한것으로 리해된다.

인지문법용어로서 주제는 일종의 주관적인 지시점이라고 한다. 인지문법에서는 주제가 다른 대상과의 인지적인 접촉을 하는데 쓰인다는 의미로 지시점으로 된다.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경우에 《We don't need flowers (for X).》의 실례가 여러가지로 분석되지만 실례(3)에서는 듣는 사람이 X가 결혼식으로 되는 구체적인 실례에 자기의 주의를 돌리게 한다.

주제는 지시점기능의 기초가 말하는 사람/듣는 사람의 지식자체속에 있는것으로 하여 주관적인것으로 된다.

아래의 실례에서 주제는 주어가 소부류(red snapper)로 되는 일반부류(fish)를 명명한다.

례: (4) (As for) fish, red snapper is delicious.

(물고기에서는 붉은 도미가 맛이 있다.)

관련된 상위범주를 상기시킴으로써 주제는 듣는 사람이 개념적공간을 따라가는 로정에서 한걸음 더 나가게 하며 그는 이 로정의 끝에서 주어와 인지적접촉을 이루게 된다.

주어가 반드시 주제로 되는것이 아니며 주제가 반드시 주어로 되는것도 아니다. 실례(2)의 (a)-(b)에서 주제는 주어에 대응하지만 (c)에서는 보어를 나타내며 실례(3)에서는 주제의 참가자역할이 지정된 과정에 변두리적이며 따라서 주제가 반드시 주어로 되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알수 있다.

아래의 실례에서는 주제가 환경을 이룬다.

례: (5) That piece of land, rice grows very big(on it).

(그 땅에서 벼가 아주 잘 자랍니다.)

한편 실례(4)에서 본것처럼 주제는 지식의 영역을 구체화해준다. 물론 주어가 가장 두드러지는 절요소로서 주제와의 련계를 이루는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주제와의 일치는 사실상 주어의 특정한 선택에 동기를 줄수도 있다.

그러나 담화주제의 역할은 절주어의 역할에 겹친다고 말할수 있으나 이것이 주어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으로는 될수 없다.

문장류형은 앞의 실례에서처럼 담화주제를 설정하기 위하여 쓰이는 특수한 구조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러한 대조의 기능은 론리적주제로서의 주어의 지위가 이미 설정된것으로 가정되는가 아니면 가정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를 보여주는것이다.

그러나 주어가 실례(5)에서처럼 설정된 담화주제가 아니라고 해도 이러한 문장들은 주어에 대한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례(2)의 문장(c)는 결혼식들에 대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의미로는 말하는 사람에 대한것이라는것 그리고 실례(5)의 rice(벼)가 주제라는 주장도 가능할수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주어는 인지적두드러짐으로 인한 담화주제가 선택되게 하여 주제의 기능을 수행하게는 하지만 반드시 담화주제라고는 정의할수 없다. 주어의 이러한 인지적인 두드러짐은 많은 구성요소들(주제성의 요인들)을 가진다. 모든 주어들에 특징적인 한 구성요소 즉 관계적그림의 지위는 어떤 문장이 담화분석에는 관계없이 자기의 주어에 대한것이라는 의미에 타당한 기초를 마련해준다.

주어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의식속에서 다른 대상들을 배경으로 하여 강조되면서 참가자들속에서 가장 높은 정도의 초점을 가진다. 결국 주어는 다른 요소들보다 더 두드러지고 말하는 사람의 머리속에서 제일 두드러져 듣는 사람의 주의를 끌어당긴다.

우리는 언어학연구에서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 외국어교육의 내용을 보다 풍부히 하여야 할것이다.